구하·경봉 스님 유지 이어 '전법 등불로'

정법사, 창건 108주년 기념 4월 30일 토크콘서트 개최

구하 스님 독립운동 터전 초대주지 경봉 스님 이어 민족귀의처 역할 재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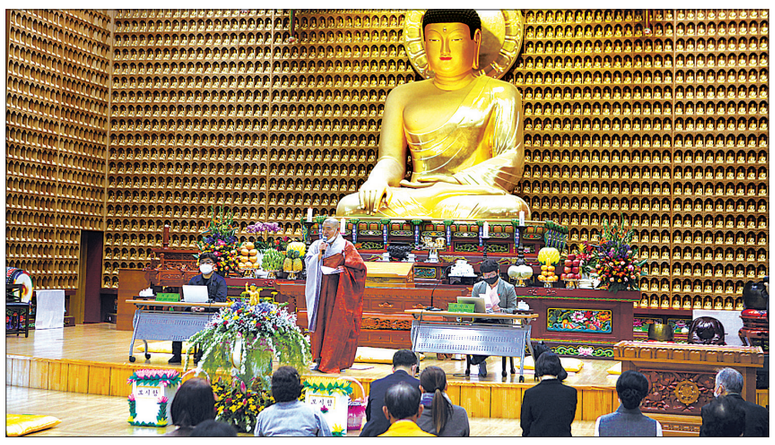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구하 스님과 경봉 스님의 창건 정신이 깃든 정법사, 교육 초석이자 민족정신의 도량으로 전법 등불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산의 포교 중심지로 새 역사를 써간 정법사가 108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전법의 의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주지 도문)는 4월 30일 만불전에서 '창건 108년 전법의 등불을 켜다' 를 개최했다.

행사는 포교당 창건을 기획한 구하 스님과 초대 주지였던 경봉 스님의 일대기를 돌아보고 창건 이념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마산 포교의 격동의 역사 중 인재를 양성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터로 활동한 정법사의 활약을 돌아보았다.


정법사 토크 콘서트 입재식에서 주지 도문 스님이 정법사의 미래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날 행사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크 콘서트는 주지 도문 스님과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기획특집부장), 최두헌 통도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진행했다.

최두헌 학예연구실장은 구하 스님과 경봉 스님의 당시 활동을 설명하며 '전법' 과 '교육' 등 정법사가 창건 된 시대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했다.

최 연구실장은 "구하 스님은 독립 운동 활동을 위장하기 위해 부산 온천에 위치한 요정(料亭)을 다니기도 하셨다" 며 "당시 요정을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고 설명했다. 또 "후학들이 공부를 잘해야 한다며 당시 울산에서부터 통도사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힘쓸만큼 교육에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 고 말했다. 이어 "경봉 스님은 정법사 초대 주지로 포교사로 임명받고 활동하셨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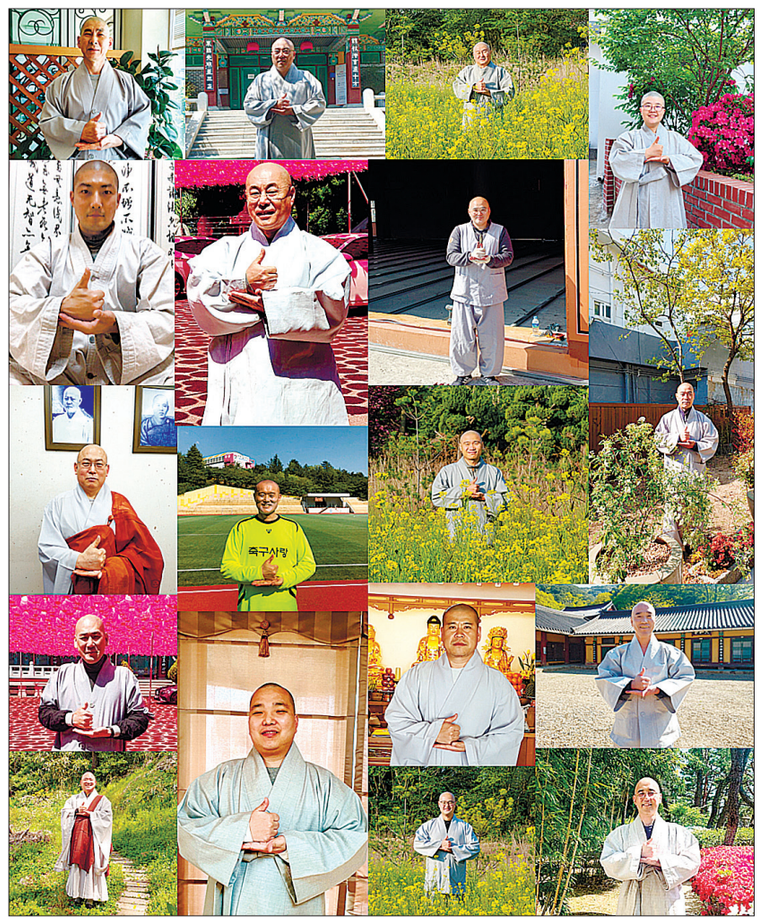
이성수 기자는 포교당 창건 전 당시 마산의 역사적 입지를 설명하고 정법사의 중요활동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신문 자료에서 근거를 찾아 설명했다.

이 기자는 "마산은 조선시대 영남 해안 상업 중심지로 1899년 개항하고 국제도시이자 신도시로 성장 발달했다" 며 "구하 스님은 민족역량을 모으기 위해 도시 포교당을 세우고자 했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창건 한 곳이 정법사이다" 고 말했다. 또 "마산 포교당은 창건 이후 불자들의 신행 공간이자 주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역할을 다했다" 고 평가했다.

정법사는 1911년 당시 통도사 주지였던 구하 스님의 원력으로 창건됐다. 1917년 초대 주지로 경봉 스님이 부임했으며 교육 도량이자 민족정신을 지키는 정신적 귀의처로 활동했다. 정법사는 1927년 배달학원을 설립했으며 1940년 대자유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사업을 이어갔다. 1998년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을 개설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를 위한 보호막으로 활동했다. 이어 영축불교대학 설립, 대자유치원 신축 개원, 만불전 대불봉안 등 불사 중창으로 발전을 더했다.

주지 도문 스님은 "앞으로 개산을 기념하며 정법사가 교육도량으로 활동을 보태준 지역 인사들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고 설명했다.

한편, 정법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관욕식을 진행하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기도했다. 봉축법요식은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최 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는 주지 도문 스님을 비롯해 최형두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부산스님들의 따뜻한 '덕분에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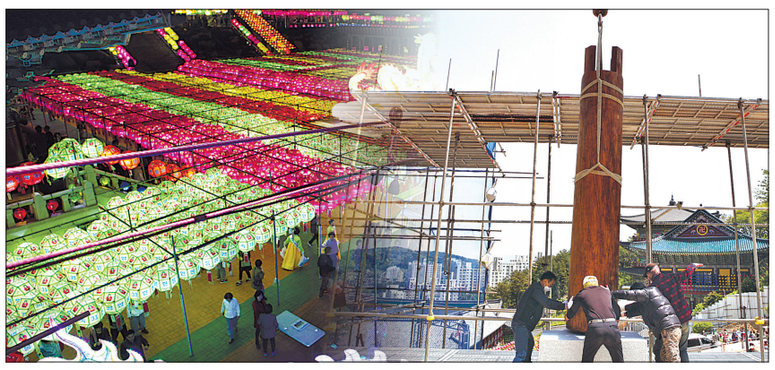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4월 2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릴레이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에 동참했다. '덕분에 챌린지' 는 먼저 회장 원허 스님을 필두로 시작해 연합회 회원 사찰 스님들이 차례로 동참하며 응원 사진을 담아 의료진들을 응원했다.

이날 챌린지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고문 심산 스님, 회장 원허 스님을 비롯해 목종 스님, 하림 스님, 종호 스님, 정관 스님, 석산 스님, 정행 스님, 선초 스님, 학산 스님, 혜성 스님, 능후 스님, 선호 스님, 담산 스님, 현도 스님, 현수 스님, 현담 스님, 승민 스님 등 총 18명의 스님들이 참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년의 빛, 삼광사서 나툰다

5월 30일까지 연등문화제 조사전 입주식 불사도 진행

7만개 연등으로 경내 장엄 28일 조사전 입주식 개최 문화전법 · 전통전승 박차


2019년 삼광사 연등축제와 4월 28일 진행된 '상월원각대조사전 입주식' 모습(사진 오른쪽).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가 천년의 빛을 주제로 한 문화와 전통 전승에 나섰다.

삼광사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천년의 빛을 품은 삼광사 연등문화제' 를 개최한다.

'천년의 빛을 품은 삼광사 연등문화제' 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민이 함께 국난을 극복하는 기도 정진의 장으로 개최된다. 이뿐 아니라 전통문화를 알리며 세계적인 연등축제로 이름 난 삼광사 연등을 널리 알리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삼광사는 봉축 때면 수만개의 연등으로 장엄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미국 CNN에서도 아름다운 한국의 명소 50곳 중 하나로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연등문화제는 코로나19 극복기원을 담은 행사로 부산진구가 특별 후원했다.

연등문화제는 4월 30일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국운융창 기도 정진과 함께 진행됐다. 이와 함께 삼광사 봉축 점등식은 5월 16일 오후 7시, 봉축법요식은 5월 30일 오전 11시에 이어진다.

5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된다. 문화행사는 연등콘서트 체험, 연등사진전, 예능대회, 먹거리 장터 등이다.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연등 길트레킹, 지화만들기, 연꽃만들기, 연등만들기, 선다체험, 도자기만들기, 관불, 전통놀이 등 불교문화체험의 장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삼광사는 4월 28일 조사전 신축 부지에서 '상월원각대조사전 입주식' 을 열고 전통 전승에도 박차를 가했다.

조사전 불사의 첫 발을 의미하는 입주(立柱)식에는 주지 세운 스님의 인사말과 김희근 신도회장의 격려사가 진행됐다.

삼광사 조사전 불사는 천태종 말사 중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사전 불사로 삼광사 개산 50주년을 맞아 상월원각조사의 중흥불사 원력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면적 280㎡(85평)에 높이 18m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며 2019년 9월 기공식이 진행됐다.

주지 세운 스님은 "우리의 생에 특별한 의미가 되고 법에 귀의하며 가르침을 이어가는 원력 다짐의 장이 되길 바란다" 고 인사했다.

김희근 삼광사 신도회장은 "조사전 불사의 원력을 모아 코로나 19도 이겨내고 조사전 불사에 모두 마음을 모아 동참하자" 고 당부했다.

삼광사는 "우리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국운융창을 기원하고 아름다운 연등과 전통문화로 환희심을 선사해 드리겠다" 고 다짐했다. (051)808-711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은해사 4월 25일 중악교 개통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4월 25일 은해사 경내의 중악교 개통식을 개최했다. 은해사는 그동안 팔공산을 출입하는 다리로 극락교가 있었으나, 다리 폭이 협소해 중악교를 개통하게 됐다. 그동안 팔공산 경내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5점와 지방문화재 20여점의 보존은 물론 등산객들의 안전, 화재 발생시 원활히 대처할 수 없었다. 은해사는 이를 개선하고자 주민숙원사업으로 작년 12월부터 확장공사 및 주변정비사업을 진행해왔다. 중악교는 RC박스 구조이며 길이는 17.3M, 폭 7.5M으로 긴급사항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팔공산은 물론 문화재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및 청통면 치일리 마을 주민과 은해사 스님들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군산사암聯, 코로나 극복 성금 전달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 상주사 주지)가 코로나 사태극복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을 비롯한 군산사암연합회 스님들은 4월 29일 군산시청을 방문해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코로나위기 극복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군산시는 이날 기탁한 성금을 코로나 확산방지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은 "불교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전통이 있다" 며 "코로나19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 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20년 2차 사찰음식 정규강좌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2020년 4월 24일 ~ 5월 31일

대한불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조계종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사찰음식

초급 26기 수요일 강사 여거스님 / 강의일정 5월 20일 ~ 8월 5일 / 오전 10시 ~ 오후 1시 / 오후 2시 ~ 5시 / 수강료 총 12회(주 1회 강의) / 600,000원

금요일 강사 동원스님 / 강의일정 5월 22일 ~ 8월 14일 / 오전 10시 ~ 오후 1시 / 오후 2시 ~ 5시 / 수강료 총 12회(주 1회 강의) / 600,000원

중급 21기 목요일 강사 도림스님 / 강의일정 5월 21일 ~ 8월 6일 / 오전 10시 ~ 오후 1시 / 오후 2시 ~ 오후 5시 / 수강료 총 12회(주 1회 강의, 현장학습 포함) / 700,000원

고급 11기 월요일 강사 홍승스님 / 강의일정 5월 18일 ~ 8월 3일 / 오전 10시 ~ 오후 1시 / 수강료 총 12회(주 1회 강의, 현장학습 포함) / 700,000원

승가교육 3기 중급 월요일 강사 홍승스님 / 강의일정 5월 18일 ~ 8월 3일 / 오후 2시 ~ 오후 5시 / 수강료 총 12회(주 1회 강의) / 100,000원

*승가교육은 초급강좌를 이수한 스님만 접수 가능

> 각 수업은 주 1회 12주 과정입니다.
> 고급과정 수료 후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 부여
> 교육내용 사찰음식 이론, 사찰음식 실습, 사찰방문 현장학습 진행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2층
☎02-2655-2776
www.koreatemplefood.com

